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Us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오 정 희 (Jung Hee Oh)*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대통령기록물 수집 개선방안 |
| 2. 대통령기록물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 5. 결 론 |
| 3. 대통령기록물 수집 및 국내현황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국외 사례분석,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물 수집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 질문지로 구성하였고, 대상기관은 기관별로 재단 및 기념 사업회, 중앙행정기관, 대학부설기관 등 15개 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총 15개 기관 17명(100%) 중에서 12개 기관 14명(82%)이며 인터뷰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방안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수집 전략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홍보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대통령기록물, 수집, 기록화, 도큐멘테이션 전략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ensate for the deficiencie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using the documentation strategy and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for collecting presidential records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references in country governance.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examined literature reviews, foreign case studies, and the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in relation to the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in-depth interviews and 15 target organizations, such as a foundation and memorial affairs agency,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university-affiliated organizations, were selected. A total of 14 records collectors of 12 organizations (82%) of all 17 records collectors of 17 organizations (100%) participated in these interviews, and the interview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rounded theor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the accumulated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model in designing collection strategy and operating and collecting presidential records through the us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Keywords: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documentation, documentation strategy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lovehihee@naver.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5년 1월 24일 ■ 최종심사일: 2015년 1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25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89-125,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1.08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전에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제가 미비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이관 받아서 관리할 수 없었으며,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대부분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멸실되었다. 국가적으로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는 특정개인이나 민간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과학적인 보존관리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대통령기록관은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수집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기록 백서』를 살펴보면 연차적인 수집계획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수집성과는 비교적 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장자 기증성고가 수치상 증가했으나 대통령 가족과 측근인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기록관은 2009년부터 기증서한발송과 기증캠페인을 시작하고 2010년 35,679건, 2011년 20,518건, 2012년 41,380건을 수집했는데, 2012년은 최규하(27,001건), 윤보선(13,462건) 전 대통령기록물의 2~3년의 정리과정 결과로 그나마 증가한 것이었다.

둘째, 구술채록 성과는 2008년 7명/92시간, 2009년 25명/146시간, 2010년 36명/180시간, 2011년 26명/120시간, 2012년 22명/122시간으

로 구술자가 2010년까지 매년 증가했다가 2012년 감소했으며, 기증성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가족과 측근인사 중심이었다.

셋째, 해외소재 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수집 성과는 2008년 17,388건, 2009년 22,425건, 2010년 11,660건, 2011년 15,777건, 2012년 7,979건으로, 2009년과 2011년에 증가했으나 2012년에 다시 감소했으며 수집은 아시아를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대통령기록물 기록화조사 사업은 조사에 앞서 국외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현황을 반영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정부 운영과 정책을 알 수 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부족하고 이러한 기록물을 보완하는 기증, 구술 등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부족한 기록물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기능별 조직유형 분석은 생산기관별 기능을 재조직하여 관련 인사나 조직의 소재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족한 역대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의의와 국외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분석하고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현황에 관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문헌 연구, 국외 사례분석, 미국 대통령기록물 수집 현황, 국내 현황분석과 심층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 국외 사례는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와 영국 The Record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살펴보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발전단계에 따라 의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과 1955년 제정된 「대통령도서관법」에 의한 대통령기록물 수집,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물 관련 수집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 공공정부 밀러센터(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가 실시한 대통령 구술사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셋째,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법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포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련 15개 소장기관의 17명 전문 수집담당자를 면담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기관은 특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6개,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 7개, 대학부설기관 2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심층 면담 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로 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근거이론방법에 따

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적용 방안에 관한 근거 이론을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관련한 국내 연구는 홍원기(2004) 등이 있으며 국외 연구는 Riley(2007) 등이 있다. 홍원기(2004)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이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 소장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역대 대통령의 유출 기록물뿐만 아니라 국외 소장 대통령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Riley(2007)는 대부분 기존 대통령기록 구술사는 상향식 접근이었고 기능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었는 데 그 반대 사례로서 구술사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그는 구술사 인터뷰가 부족한 대통령기록물을 채울 수 있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이론적 방법론의 국내 연구는 이승억(2005) 등이 있으며, 국외 연구는 Malkmus(2008) 등이 있다. 이승억(2005)은 서구 기록의 평가 선별 결정 과정에서 도큐멘테이션 구축 속에 기록이 전체로서 담고 있는 상징이 무엇이고 얼마나 대표적인가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고도의 전자 환경에서 사회적인 도큐멘테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포착하여 적합한 평가 선별 결정을 위한 아키비스트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Malkmus(2008)는 미국물리학회 20년 동안 진행된 2개의 프로젝트와 아직도 진행 중인 웹기반 프로젝트로 LGBTRAN(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eligious Archives Network)

의 성공적인 사례와 NHPRC(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 Records Commission)가 지원한 2개의 지리적인 기반 프로젝트 등 총 5개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강점과 약점을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지역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설문원과 김정현(2013) 등이 있으며 국외 연구는 Ericson(1997) 등이 있다. 설문원과 김정현(2013)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기록화를 추진하고 정보의 체계적 축적이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는 spanDoc 모형(SPA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Model)을 채택하여 부산의 공간 기록화에 적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부산지역 동해남부선의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기록화 전략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다. Ericson(1997)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NHPRC에서 연구비가 지원된 밀워키, 윈스콘신 대도시 지역 아카이브 보존소에서 기록화 대상을 정의하고, 기존 보유를 분석하고, 참여기관의 지역을 조사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주제 및 사건의 활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김익한과 권소현(2010) 등이 있으며 국외 연구는 Phillips(1995) 등이 있다. 김익한과 권소현(2010)은 무형문화재인 강릉단오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강릉단오제 의식과 전승 등 기록화 대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강릉단오제의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록물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기록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Phillips(1995)는 기록물보존소의 전체 수집 개발 정책에 추가할 수 있는 의회 문서 수집 개발 정책 모델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

하였으며, 실행 가능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지역·주제·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사례연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우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방안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대통령기록물과 도큐멘테이션 전략

2.1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필요성

2.1.1 개념과 유형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대통령상징물 및 대통령 선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개인기록물과 『대통령기록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이 법 시행 전의 전직 대통

령, 그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 및 기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대통령기록물 수집대상의 유형은 기록물의 성격, 생산기관, 매체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공적 기록물은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한 기록물로 매체에 따라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 등 문서와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비디오테이프, 오디오테이프, 사진, 필름, CD, DVD, 마이크로필름 등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인 시청각 기록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매체에 따라 전자 기록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되어 대통령기관에 이관된 역대 대통령이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인 대통령 선물, 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인 대통령 상징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사적 기록물은 대통령 개인이 생산한 것으로 매체에 따라서 메모나 자서전 등 종이류에 기록물인 문서, 시청각 기록물, 전자 기록물,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인 개인박물, 개인선물 등으로 구분된다.

2.1.2 대통령기록물 수집의 필요성

대통령기록물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관을 거쳐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대통령 개인기록물은 이러한 이관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고 대통령 개인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

한 규정」과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수집·관리 지침」이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수집규정 및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인기록물은 국가소유로 완전히 확립되지 못하였고, 현재 대통령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른 기증에 의존하고 있어서 질적이나 양적으로 풍부하게 갖추어진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개인기록물은 대통령 재임 전과 대통령 재임 당시의 개인기록으로 구분되며, 대통령 재임 전 개인적 기록물뿐만 아니라 정치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등이 있는데 당시에 보존하고 있는 것 외에 현재 대통령기록물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집전략이 필요하다.

2.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의의

2.2.1 개념과 특징

『기록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이다(한국기록학회, 2008). 이 용어는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정의되었으며, 현대 사회운동을 기록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선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초기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단일한 정의에 관한 합의는 접근방법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복잡하게 되었으며, 용어는 대중화되고 거의 모든 수집계획을 참조하는데 사용되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조직분류를 포함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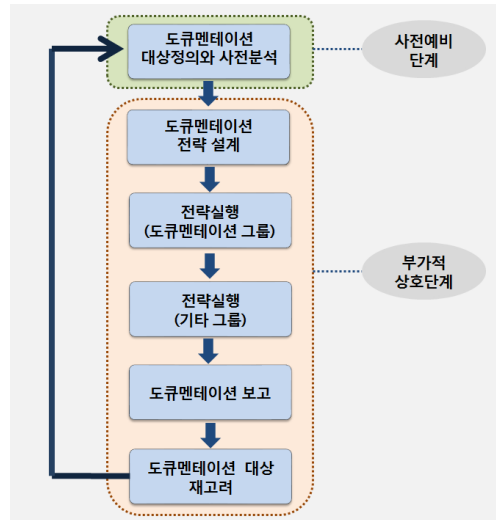
능분석과 다른데, 이 전략은 기능분석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존을 위한 적합한 기록물 및 계획을 선별한다. 또한 보통 단일 기관을 대신해 아키비스트가 기능분석을 수행하지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복수 보존소 사이에서 수집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생산자, 이용자 및 아키비스트가 함께 수행한다(Malkmus, 2008).

도큐멘테이션의 특징은 Samuels의 초기 이론 전략, Hackman과 Warnow-Blewett의 전략 프로세스 모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Samuels(1986)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4가지 활동인 기록화 할 주제 선별과 정의, 자문위원 선정과 전략의 영역 수립, 이용이 가능한 도큐멘테이션의 구조와 본질을 조사, 도큐멘테이션 선별과 배치로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아카이브 컬렉션이 특정 기관의 기록물과 그 기관의 활동을 반영하는 주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전략에 관한 주제가 선택되면 활동에 관한 영구적인 기반을 확인해야하며 프로젝트를 안내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이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문단의 그룹을 선별해야 한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존의 수집활동과 유사하게 보이나, 주제가 선별되고 범위가 정해지면 조사 및 수집 활동이 시작된다. 넷째, 전략 조사 및 계획은 기록물의 검색 및 소장위치를 안내한다.

Samuels의 전략을 기반으로 Hackman과 Warnow-Blewett(1987)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양식과 지침을 개발했는데, 이 프로세스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사전 예비 단계와 5가지 부가적 상호작용 단계로 구성된다(Hackman& Warnow-Blewett, 1987).



<그림 1>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세스 모델

첫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에서 도큐멘테이션 대상 설계와 예비 사전분석을 한다. 이 단계는 각 그룹이 기록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집할 때 시작하며, 초기그룹은 이용자와 생산자의 대표자, 아키비스트, 주제 전문가를 포함한다. 예비 사전검토의 목적은 그룹이 초기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큐멘테이션 대상의 영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이 구성되면 공식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 정책을 준비한다. 이 단계에서 그룹은 이 전략을 준비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참고한다.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전략 정책을 개발하고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전략을 실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이 전략을 실행하거나 또는 기타 그룹에게 실행을 제안한다. 네 번째 단계는 기타 그룹별 전략을 실행한다. 이들은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기록관리자, 아카이브 및 수집 담당자 그리고 이용자 그룹, 정부직원, 자금지원기관, 전문가 협회 등 기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그룹에 유익한 정보를 보고하며 프로세스 개별 단계에서 설명한다. 또한 도큐멘테이션 보고는 정책, 절차 및 도큐멘테이션 행위뿐만 아니라 관심과 견해를 포함한다. 여섯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대상과 관련된 분야 또는 정보의 변화로 도큐멘테이션 그룹이 도큐멘테이션 대상을 정의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한다. 이 프로세스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대상을 재정의하고 요인을 연결한다.

2.2.2 국외 사례

1)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는 국가의 정

치적·사회적 역사를 기록화하려는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공공부문에 따라 사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은 캐나다 아카이브 수행의 중심이었다. 이 개념은 1970년대에 아카이브 사전(archival lexicon)에 출현했고, 캐나다 보존 역사 150년 이상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이 개념의 발전을 3시기로 그룹화 하면 <표 1>과 같다(Millar, 1996).

1800년에서 1972년까지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 개념은 첫째, 아카이브 사업에서 정부 중심의 역할 인식, 둘째, 캐나다 정체성 추구의 필요성 이해, 셋째, 공공기관에 의한 민간부문 기록물 수집과 사본의 지속적인 유효성, 넷째, 공공분야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 인식, 다섯째, 다양한 미디어에서 기록물 보존의 중요성 인식 등으로 발전해왔다. 그리고 이 개념은 1990년대 국가적 신뢰에 따라 아카이브 시스템(archival system)으로 발전했다.

<표 1> 토탈 아카이브 개념의 시기별 발전과정

구분	제1시기 (1800년~1900년 초반)	제2시기 (1900년 중반~1970년 후반)	제3시기 (1980년 초반~현재)
등장배경	- 부족 사이에서 역사적인 기록물을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발생	-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의 - 복잡한 관료주의 및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기관기록물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필요성에서 발생	- 20세기 후반 정보의 세계화로 인해 아카이브의 세계화 - 기록 관리 프로그램은 전국에 걸쳐서 등장
아키비스트 역할	- 소규모 아키비스트가 외국에 소유권이 있는 기록물을 복사하여 캐나다 과거를 해석하는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실행	- 아키비스트는 조직 자체 기록물을 관리 - 수집가, 역사학자 및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기타 기관의 기록물 해석가로 봉사	- 개인기록물 수집과 기관기록물 관리를 하는 아키비스트의 책임은 한 아카이브 기관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짐
특징	- 역사적인 기록물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보존 책임으로 고려	- 아카이브 보존소는 자연적으로 크게 성장 - 각 보존소는 기관과 민간 기록물 관리를 포괄하는 작업을 추구 - 토탈 아카이브 용어가 처음 발생	- 지역사회 기반의 아카이브 기관을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대규모 공공 기관에 의한 개인 기록물의 수집지원 감소 - 토탈 아카이브 개념은 지역사회, 지방, 기관과 기타 아카이브가 기록물 유산의 보존을 보장하는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발전

토달 아카이브와 관련한 협력전략에 관한 시도는 1980년대 중반 세계교회주의 연합(ecumenical coalitions)의 14명 연구자가 사회 운동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물 조사를 착수하고 토론토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 아키비스트들의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세계교회주의 연합은 경제 발전, 주권(native rights)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캐나다 기독교 교회 컨소시엄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후 캐나다 아카이브 협회는 다른 작업사이에서 기존 수집 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설립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관 아키비스트는 추가 기관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집범위와 제한된 기록물의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했다(Thompson, 1990).

2) 영국 The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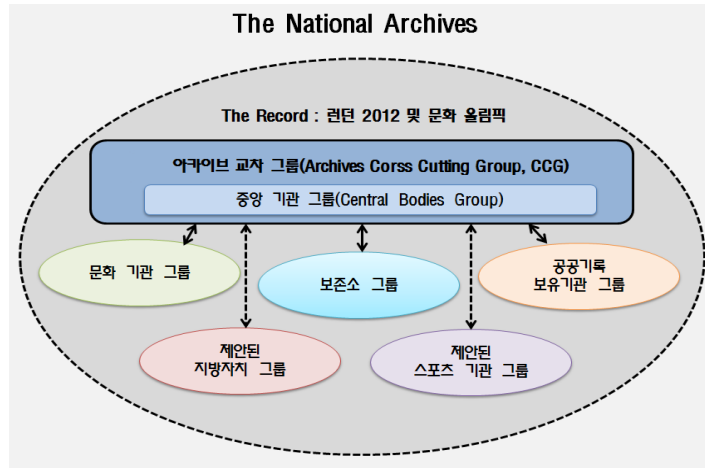
The Record는 영국 TNA가 런던 2012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문화 올림픽아드(Olympic and Paralympic Games, and the Cultural Olympiad)의 기록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12월에 시작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제 사례로 발전된 수집전략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Williams, 2012).

첫째, The Record는 게임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고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인, 교육 전문가, 정책입안자, 실무자, 기획자, 연구자가 기록물과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둘째, The Record에서 채택한 이론

적 접근방법은 선별을 안내하고 특정한 지역장소, 주제, 사회 전반에 걸쳐 적절한 보존을 보장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셋째, The Record를 위한 MLA(National Archives and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와 공동 프로젝트 기관이 폐지되면서,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한 책임은 Arts Council England와 TNA로 이전되었다. 넷째, The Record를 위한 전략적 목적은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문화유산 약속으로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2012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게임 이후에도 문화 올림픽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2008년 12월 잠재적 이해관계자는 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과 개인 그리고 아카이브 평가와 보유를 참고하여 The Record 제공을 계획하고 회의를 했다. 이러한 The Record 조직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각 분야 대표자인 이해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The Record의 목적과 핵심 목표전달을 실행하는 허브(hubs)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그룹은 The Record 이관전략 정의에 관해 <표 2>와 같이 명확한 의무를 부여했다.

여섯째, 이해관계자는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기록물 생산을 위한 책임을 다했으며, 각 조직은 London 2012년 파트별 역할을 했고 The Record 기록물 유산에 기여하는 방법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물은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선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위해 설계되었다. 좋은 사례로 문화유산 아카이브 타임라인은 이러한 제공을 위하여 목표 날짜와 주요 단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림 2〉 The Record 조직적 구조의 제공

〈표 2〉 The Record 그룹별 의무사항

구 분	그 룹	의무사항
A	아카이브 교차 그룹(중앙 기관 그룹)	범위, 절차 및 이관에 관한 중요한 결정
B	보존소 그룹	The Record를 정보, 기록물 및 기타 자원을 연결한 수집으로 발전시킴
C	공공 기록 보유기관 그룹	기록물 생산, 관리, 장기 보존과 접근에 관한 법적의무를 이행
D	문화 기관 그룹	The Record와 문화적으로 관련된 자원을 확인, 관리 및 보존
E	스포츠 기관 그룹	The Record와 스포츠면에서 관련된 자원을 확인, 관리 및 보존
F	지방 자치 그룹	자체 London 2012년 관련 기록물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항을 만들며, 지방 및 국가적으로 중요한 멀티미디어 보존물을 인수받을 준비

일곱째, The Record를 시작하는데 있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의사소통이었다. TNA는 The Record를 복잡한 공공 및 민간 환경에서 공적인 목표로 운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목표 및 결과물을 공개회의에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이관전략의 부분으로 The Record는 DCMS의 2012년 게임의 영향 및 유산 평가 체계와 비교하여 외부에서 평가되었다. 그리고 2011년 4월에 공개된 이 체계는 2012년에 체크리스트를 제안했다. 이상의 국외 도큐

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비교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캐나다의 토털 아카이브는 오래된 역사를 바탕으로 캐나다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아카이브 세계화를 추진하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영국은 올림픽이라는 활동과 주제를 장기 보존하여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한 점이 특징이다.

〈표 3〉 국외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 비교

구분	캐나다	영국
프로젝트	토탈 아카이브	The Record
기록화 대상	세계교회주의 기록물	런던 2012년 올림픽 기록물
실행 기관	성공회 및 연합교회 태스크포스팀	TNA
기간	1983-1988	2008-201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공통문제 해결 위해 연구 -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정의 - 아카이브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던 2012년 올림픽 기록유산을 장기보존 위해 설계 - 올림픽에 관한 정보, 기록관리 문제 해결 목적
자문 위원회	종교기관 아키비스트, 기독교관리위원회, 종교학자	아키비스트, 정책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지역사회 시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보존역사 150년 이상 국가적 토탈 아카이브 개념 발전에 기여 - 종교아키비스트 위원회는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에 적용가능한 수집정책개발 - 단일 세계교회주의 연합 아카이브 설립의 가능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A가 주도 - 목표가 명확 - 잠재적 이해관계자 그룹 선출 - 조직구성별 의무사항 부여 - 파트별 타임라인작업 - 프로젝트 결과물 정기적 발표 - 체크리스트별 외부 평가 체제

2.2.3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의의

Samuels(1986)는 수동적 수집을 통해 획득되는 것보다 유용한 역사적 기록을 생산하는데 혁신적, 주도적 및 협력적 접근방식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안했다. 다음 해 미국 아키비스트는 유사한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1961년부터 실시한 물리학을 위한 미국 물리학 학회 프로젝트의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이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접근방법에 관한 막대한 낙관론과 비평을 불러왔다.

특히 Cook(1992)은 Samuels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평가를 위한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제별 접근방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비기록화적이며 매우 좁은 지역을 기반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주제 및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아키비스트의 연구 작업과 기록물 수집의 중복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Menne-Haritz(2009)는 도큐멘테이션 계획과 작업 방법은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만든다고 했으며 아카이브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실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아키비스트가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러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성공적인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들이 나왔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의의에 관해 언급한 연구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Warnow-Blewett, Genuth와 Weart(2001)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하여 역사-사회학적 연구를 하고 다기관 협력 조직의 유형분류체계를 분석한 후 기록물 생산의 기능을 분석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세스 이해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계획하여 인터뷰를 설계하는데, 이러한 인터뷰는 각 기관협력

에서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기관별 수집 경험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Williams(2012)는 프로젝트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국가, 사회, 개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 정책을 설계하고 수집 정책문을 작성할 경우, 지침과 규정에 따라 일관적인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룹별로 전략을 실행할 역할을 부여하고 의무사항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은 역할과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실행하여 프로젝트 주제별로 기관을 연계하여 협력하도록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 목표와 비전을 증거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설계하여 영역별로 성과와 영향을 파악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을 측정하며 사회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Thompson(1990)은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가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을 파악하여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국가 아카이브의 잠재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수집 주제의 범위 설정과 기능 정의를 통하여 주제와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인터뷰 설계를 하면 조직 간에 협력과 공유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집 정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

3. 대통령기록물 수집 및 국내현황

3.1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

3.1.1 대통령기록물 수집

미국은 20세기 이전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열악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다가 20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를 미국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발전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Geselbracht, 1983).

NARA 홈페이지에서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의 중심기관인 NARA 대통령 도서관국(Office of Presidential Libraries)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13개 대통령도서관, 대통령 자료부서(Presidential Materials Staff), 중앙 사무국부서(Central Office Staff)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할 때 NARA는 새 대통령도서관을 건립하고 대통령기록물이 정부에 이관될 때까지 대통령 프로젝트를 설계한다.

대통령 도서관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새 대통령도서관 발전과 역사적인 기록물 이용 그리고 기록물 인수와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통령 도서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둘째, 도서관 내에서 예산 및 관리를 통제하여 감독하고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 및 검토한다. 셋째,

〈표 4〉 미국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역사

구분	제1시기 (1800년 이전)	제2시기 (1800년 이후~1938년)	제3시기 (1938년~1978년)	제4시기 (1978년~현재)
배경	기록물관리 무관심	심각함을 느낀 정부가 수집 노력	루즈벨트 대통령 개인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기증한 후 대통령 도서관 건립	1974년 닉슨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인 워터게이트 사건계기
관리 기관	대통령이 소유	미국 의회 도서관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대통령도서관	NARA 대통령도서관에서 13개 개별 대통령도서관의 건립과 운영, 수집 총괄
관리 제도	법 규정 미비	미국 국무부 연방정부의 승인에 따라 수집	『대통령도서관법』(Presidential Library Act)(1955)	-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 보존법』(1974) - 『대통령기록물법』(1978) - 『국가기록관리청법』(1984)
수집 방법	- 일부 대통령이 의회도서관, 역사학회, 대학에 기증 등 - 개인소장 및 판매 등	- 초기: 구입 또는 정부기관에서 이관 받음 - 점차 기증, 관권보존 방식	- 대통령기록물과 도서관건물을 정부에 기증하면 - 정부는 도서관 직원을 충원하여 기증에 따라 도서관 운영	개별 대통령도서관에서 기증, 구술, 구매 등
특징	- 대통령기록물이 방치되어 불태워지고 대부분 파괴 - 대통령기록물을 사적 소유물로 인식	- 초기 국무부에서 수집한 기록물 이관에서 시작 - 의회도서관은 조지워싱턴에서 켈빈 콜리지까지 23인의 대통령기록물 소장 - 한계: 전직 대통령 및 상속자와 관련한 사적 소유권 문제 발생	-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도서관에서 집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개별 대통령도서관을 민간 자금으로 건립하여 관리하는 선례를 남김	-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어 모든 대통령기록물 소유권을 확보 - 이 법의 제정으로 레이건 대통령부터 법령에 따라 NARA로 직접 기록물이 이관되는 제도가 정착됨

NARA의 법률고문과 기타 NARA직원과 협력하고 대통령 기록물을 운영, 보존 그리고 참조하는 서비스에 관해 이전 정부 관리자, 책임 관리자와 연락을 유지한다.

개별 대통령도서관은 대통령과 관련 있는 공식 및 사적 기록물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아서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의 범주를 폭 넓게 정하여 대통령의 가족과 대통령 관련 자문 및 보좌기관 직원과 동료들의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대통령 개인 기록물도 마찬가지로 수집하고 있다.

NARA 홈페이지에서 대통령 도서관관을 살펴보면, 13개 대통령도서관은 4억 페이지 이상 문서자료, 1000만 사진, 1500만 피트 영화필름,

약 100,000시간 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녹음, 약 50만 박물이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장은 각 도서관에 풍부한 정보의 원천으로 대통령에 대한 연구의 중심역할을 한다.

3.1.2 사례분석

1948년에 설립된 컬럼비아 대학 구술 역사 연구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그램이며 대통령도서관에서 첫 번째 구술사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다(Greenwell, 1997).

미국 대통령도서관은 세 가지 법률인 『대통령도서관법』, 『대통령 녹취 및 자료 보존법』,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구술사 프로그램을 수행했는데 인터뷰 형태에 따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되며 〈표 5〉와 같다.

〈표 5〉 구술사 프로그램의 적용 법률과 인터뷰형태

대통령	대통령도서관 적용 법률	인터뷰형태
후버	- 관련 법률: 『대통령도서관법』(1955) - 의회가 루즈벨트 대통령도서관의 성공을 언급하며 제정했고, 다른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기록물을 기증하도록 지원함 - 8개 대통령도서관은 이 법률에 따라 민간 또는 비영리재단에 의해 건립 - 운영을 위해 미국국립문서보존소(National Archives)에 인계됨	- 1세대 - 1960년대 초 구술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 그러나 지금 대부분 완료 - 구술사 프로그램은 특별한 경우 또는 기회가 발생하면 진행함 - 트루먼 대통령도서관이 최초 - 많은 구술사 자료는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도서관이 소장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닉슨	- 관련 법률: 『대통령 녹취 및 자료 보존법』(1974) - 워터게이트 논란 이후, 의회는 닉슨 대통령기록물은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에 의해 보존, 처리 그리고 이용 가능하도록 주문함 - 그러나 닉슨은 사적인 대통령도서관을 건립	- 2세대 - 대통령 공적의 모든 측면을 기록화하는 프로그램보다 백악관 직원의 출구 인터뷰(exit interviews) 형태에 따라 규모와 범위가 모두 축소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클린턴	- 관련 법률: 『대통령기록물법』(1978) - 대통령기록물의 사적인 소유권 개념이 변화 - 레이건 정부를 시작으로 현재 대통령기록물은 연방정부의 통제아래 지정됨	

1세대 대통령도서관을 살펴보면 먼저 트루먼 대통령도서관은 1963년에 시작하여 1992년까지 계속 구술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 도서관이었다. 또한 존슨 대통령도서관은 개관을 계획하는 시기에 구술사를 역사적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여, 구술사는 영향력 있는 대통령의 시기를 도큐멘테이션하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2세대 대통령도서관은 백악관 직원 출구 인터뷰(exit interviews)를 실시했으며 닉슨 행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Greenwell, 1997). 미국에서 구술사 작업의 주요 성장 기간은 구술사 자체실시가 좀 더 주류화 및 제도화된 1960년대에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은 NARA 및 후원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1970년대에 대통령 구술사를 중단했고, 아키비스트는 백악관 공직자가 시작한 출구 인터뷰를 지속적인

로 수행하지 않았다(Riley, 2007).

1970년대 대통령도서관의 구술사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 버지니아 공공정부 밀러센터(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에서 구술사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 센터는 각료 구성원, 고위층 관리 및 선거 고문과 함께 약 425시간의 기록물 인터뷰인 부시 구술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한 2003년 9월 센터는 닉슨대통령에서 클린턴대통령까지 각 행정부를 대표하는 7개 전 백악관 의회 연락담당자와 관련한 백악관 의회 정무 심포지엄을 후원했다.

3.2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

3.2.1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의 제정 전후 시기

별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관리 변천의 관련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3.2.2 대통령기록관 수집현황

먼저 개인소장자 기증을 통한 수집은 『국가 기록 백서』를 살펴보면 대통령기록관은 2009년 '역대 대통령 발굴·수집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DB를 구축했고, 기증 협조 서한을 발송 등 기증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구술채록을 통한 수집은 생애사 구술채록을 제외하면 재임 시기에 집중되어있고 구술 대상도 역대 대통령측근 인사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술 중장기 계획, 유관기관

사례조사 및 간담회, 정책분야별로 심층 분석 등을 추진하여 구술채록 수집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국외소재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은 수집현황의 결과물 양도 적었고 수집처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이나 현지조사위원을 통해 소재정보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수집처 발굴을 시도하였다.

3.2.3 미국과 한국 대통령기록물 수집비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6>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수집관리 변천

구분	제1시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전	제2시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년)	제3시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배경	대통령기록물 보존과 수집에 소극적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작성수립·시행 -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확산
관리기관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련규정	1949년 정부처무규정 제8조 - 국무회의의 의결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결재를 기칠 문서는 특류로 구분 - 제15조: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오는 문서는 총무처문서과를 거쳐 접수함 1963년 정부공문서규정 제54조 - 대통령과 사이에 왕복하는 문서를 수발할 때는 내각사무처를 경유함을 규정 1987년 정부공문서규정 제39조 -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다)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됨을 처음으로 규정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34조 - '대통령 결재문서 등에 대한 특례'에서 대통령 결재 및 보고문서는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및 보존 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관련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의 장이 수집 및 보존규정 -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관련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의 장에게 통보 - 중앙기록물관리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임기종료까지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 또는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 조치하도록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목록작성 및 정리에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대통령기록물법」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 대통령기록관이 역대 대통령이 재임 전후 및 재임시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비용지급

구분	제1시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1999년) 전	제2시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999년)	제3시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수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보존, 수집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했음 - 1987년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 및 보고된 문서를 수집 관리하여 일부만 이관되었음 - 1991년 사무관리규정은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나 비망록, 대통령 부속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은 관리가 어려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규정하고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대화록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확대(시행령 제28조제1항) -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에 대한 이관·수집근거 처음 규정 -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임 대통령에게 기록물의 목록을 통보하게 함 -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인계 조치 이관규정(시행령 제2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법 최초 제정 - 대통령기록물의 국가 소유권 명시 - 국가 소유권 규정에 따른 방대한 이관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직접 연관된 생산기관 기록물이 모두 이관됨 - 대통령 '개인기록물'을 처음 규정 - 대통령기록관의 '개인기록물'과 관련한 수집 및 관리처음 규정

〈표 7〉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 비교

구분	미 국	한 국
관리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연방기록물법」 제정으로 국립기록보존소 이관 규정이 마련 - 1955년 국립기록보존소는 연방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정례화하고 대통령도서관에 대한 행정관리를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 - 1955년 8월에 「대통령도서관법」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정부처무규정」에 처음 대통령관련 문서 접수규정 - 1987년 「정부공문서규정」에 대통령기록물 정부기록보존소 이관규정 마련 - 1990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근거 마련 -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독립적인 법률이 마련
관련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도서관법」(1955) - 「대통령 녹취기록물 및 자료보존법」(1974) - 「대통령기록물법」(1978) - 「국가기록물관리법」(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2007)
관리기관	NARA 대통령도서관국	대통령기록관
관리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도서관 정책 설립 및 조정 - 대통령도서관내 예산, 관리를 통제 및 감독 - 대통령도서관내 비전, 목표 실행위한 전략계획 - NARA법률고문, 직원과 협력하여 운영 및 이전 정부 관리와 연락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 잠재적 기증자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집 추진 - 대통령기록물의 결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술체록 병행 수행 -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생산 및 이관을 위한 기록관리 컨설팅
기관형태	분리형 - 대통령임기 종료시 개별대통령도서관으로 운영 ※ 완전한 분리형은 아님	통합형 - 대통령임기 종료시 통합적인 대통령기록관 운영 - 단 법률규정에 따라 개별대통령 건립과 운영할 수 있음
수집관리 프로세스	- 개별 대통령기록관에서 수집 하면 NARA대통령도서관 국에 승인 및 감독을 받는 관리체계	- 대통령기록관 자체관리 - 대통령기록관의 개별 민간대통령기념사업회 및 재단의 수집에 관한 관리 및 감독체계가 없음
대통령기록물 소유권 (현재)	- 국가에 있음 - 성립시기: 1974년 닉슨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소유권 분쟁인 워터게이트 사건계기로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 규정	- 국가에 있음 - 성립시기: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으로 규정
대통령기록물 범위	- 공식기록물: 대통령 공무의 수행과 관련된 문서 - 개인기록물: 일기·일지 또는 기타 개인적인 기록물, 사적인 정치적 조직에 관한 자료, 대통령자신 또는 공식선거의 투표에 관한 자료	- 공식기록물: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된 기록물 - 개인기록물: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수집방법	기증, 구술, 구매 등	기증, 구술, 구매, 위탁, 역대 대통령관련 해외기록물 수집 등

대통령기록물관련 제도가 형성되기 전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는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소유물로 인식한 점과 대통령기록물법이 없었던 점 때문에 관리되기 어려워서 방치, 폐기, 매매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였으며 대통령기록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대통령관련 제도인 「대통령도서관법」이 1955년에 한국보다 먼저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었다.

둘째, 미국은 197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물을 기증하는 문화가 성립되었고 대통령도서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자발적인 대통령의 기증문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국내는 역대 대통령의 기증이 부족하며 대통령기록관의 기증활성화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한국보다 먼저 대통령기록물의 국가 소유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4년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후 국가가 대통령기록물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으로 국가소유권이 확립되어 이관이 이루어졌다.

넷째,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리 기관은 대통령임기가 종료하면 개별 대통령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완전하지 않으나 분리형으로서, NARA 대통령도서관에서 개별 대통령도서관의 기증, 구술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필요에 따라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만 대통령임기 중

료시 통합형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형이어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및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미국과 달리 1948년 이후부터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정부운영과 정책을 알 수 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이 부족하고 이러한 기록물을 보완하는 기증, 구술 등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기록물을 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3 국내 현황

3.3.1 연구 절차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도큐멘테이션 전략 협력대상인 생산자, 보존기록관, 기록물 이용자, 연구자 중에서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인 보존기록관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보존기록관 대상기관은 국내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현황을 조사한 후 기관별로 구분하여 15개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15개 대상기관에서 재단 및 기념사업회는 (사)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기념사업회, (사)윤보선대통령 기념사업회,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재)최규하대통령 기념사업회, (사)김영삼민주센터, (재)김대중대통령기념사업회, (재)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으로 7개 기관이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로 6개 기관이며 대학부설기관은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으로 2개 기관이다. 다만 인터뷰 대상기관에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면서 보존기록관으로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관리의 중심 기관이므로 3명을 면담하였다.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14년 9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1인당 평균 57분이고, 총 15개 기관 17명(100%) 중에서 12개 기관 14명(82%)이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 목록은 <표 8>과 같다.

심층 인터뷰는 근거이론의 반구조화로 구성

된 질문지로 Malkimus(2008)가 제시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표 9>와 같이 4개 부문에서 총 20개 질문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3.3.2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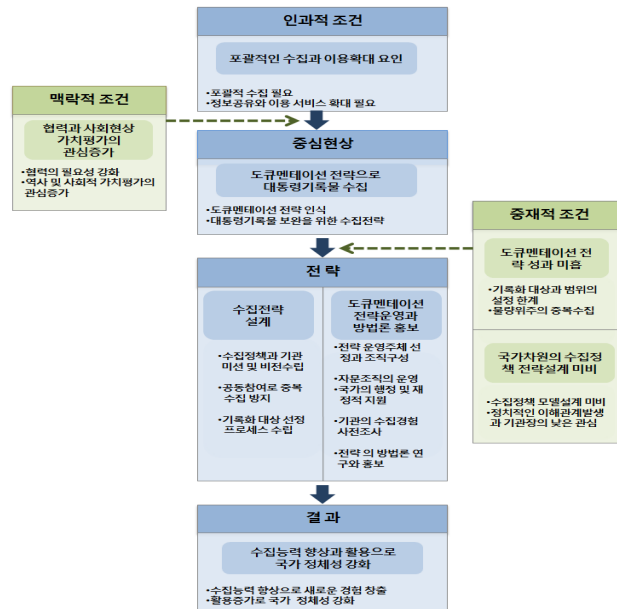
먼저 심층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질문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후에 개념을 만들었으며 개념 도출은 엑셀의 필터링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분석은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면서 범주와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축코딩을 통하여 범주와 하위범주의 관계를 발견하여 연결시켰으며,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조건, 전략, 결과와 같은 페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페러다임 모형은 <그림 3>과 같으며, 개방 코딩을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42개의 개념과 20개의 하위범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8> 심층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코드 구분			직책 및 직위	최종 학력	근무 경력	인터뷰 날짜	인터뷰 시간	
기관	참여자	성별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회/재단	A	A1	남	간사	박사재학	2년	11.3	80분
		A2	남	본부장대행	학사	4년	10.31	80분
		A3	남	사료연구팀장	석사	6년	10.14	51분
		A4	여	간사	석사	7년	11.5	37분
		A5	남	사서	석사	11년	9.30	37분
중앙행정기관	B	B1	남	기록연구관	박사	5년	10.7	40분
		B2	남	편사연구사	박사	14년	10.2	52분
		B3	남	사서주사	석사	7년	10.23	56분
		B4	남	사서	석사	12년	10.10	58분
		B5	남	학예연구관	석사	11년	10.23	80분
		B6	여	기록연구사	박사	9년	10.28	57분
		B7	여	기록연구사	석사	7년	10.23	28분
대학부설	C	C1	여	기록연구사	석사	4년	10.21	110분
		C2	남	교수	석사	17년	10.8	37분

〈표 9〉 인터뷰 질문 항목

인터뷰 항목		문항수
부문	질문 세부 항목	
I.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전략을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협력적 수집방안 연구 필요성 - 이 전략을 활용하여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 이 전략을 통해 다기관 협력 수집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고려사항 - 대통령기록물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인식 확대방안 	4
II.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에서 가장 고려하는 요인과 어려운 점 -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에서 기록화 대상관련 (사전 분석 및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수집방법 등) - 대통령별 기록화 기준을 결정할 때 기관 및 개인의 주관성 반영시 해결방안 -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에서 기록화 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유무 그리고 수행시 성과와 미흡한 점 	4
III. 다기관 협력 수집의 성공적인 적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기관 협력 수집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고려사항 - 기존 수집기관의 수집경험 조사 -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구체적 방안 - 이 전략을 적용한 대통령기록물 관련 협력적 수집방안 연구에서 운영주체와 다기관 협력수집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분석기준 - 대통령기록물 관련 다기관 협력기관 조직구성과 역할 - 다기관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협력체계로 기관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자문조직 운영과 인적구성 및 역할 - 다기관 협력 수집의 결과물의 공공(대중)의 또는 정치적 관심 방법 - 다양한 기관의 의견 반영을 위해 디지털 기록 통합 시스템(가칭)을 개발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10
IV. 다기관 협력 수집 방안 연구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방안으로서 다기관 협력 수집 연구에 참여할 의향 - 다기관 협력 수집에 참여하고 실제로 적용할 경우 기대 효과 	2



〈그림 3〉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표 10〉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관한 개념 및 범주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 법적 이관으로 대통령기록물 포괄 불가능 -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제한적인 수집방법	포괄적 수집 필요	포괄적인 수집과 이용확대 요인	인과적 조건
- 기관 간 정보공유 활용 - 시민참여와 이용서비스	정보공유와 이용 서비스 확대 필요		
-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인식형성 - 방법론 필요성	도큐멘테이션 전략 인식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	중심현상
- 기존 수집 기록물 연계방안 - 소재정보를 파악하여 부족한 기록물 보완	대통령기록물 보안을 위한 수집전략		
- 기관 간 노하우 공유 - 수집 대상 다양화	협력의 필요성 강화	협력과 사회현상 가치평가의 관심증가	맥락적 조건
- 역사 및 사회적 가치와 맥락의 평가 연구 - 사회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증가	역사 및 사회적 가치평가의 관심증가		
- 소재정보 파악의 어려움 - 수집대상과 범위 선정의 어려움	기록화 대상과 범위의 설정 한계	도큐멘테이션 전략 성과 미흡	중재적 조건
- 초기 탈실로 물리적 수량 부족 - 수집경쟁에 따른 중복수집	물량위주의 중복수집		
-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적 및 재정적 비용과다 - 기관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비밀관성 유발 - 구체적인 수집정책 프로세스 모델 부재	수집정책 모델 설계 미흡	국가차원의 수집정책 전략설계 미비	중재적 조건
- 민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발생 - 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의 낮은 관심과 이해	정치적인 이해관계 발생과 기관장의 낮은 관심		
- 수집정책 성문화 필요성 - 기관의 미션과 비전 설계로 마인드 형성	수집정책과 기관미션 및 비전 수립	수집전략 설계	전략
- 공동참여와 협력 중요 - 무분별한 중복수집 방지	공동참여로 중복 수집 방지		
- 기록화 대상 및 범위분석 - 우선순위 결정 - 기록화 대상 수집방법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	전략
- 대통령기록관 적합 및 이외 기관(안) - 조직구성과 역할	전략 운영주체 선정과 조직 구성		
- 자문조직의 장점과 단점 - 자문조직 선정 기준	자문조직의 운영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	전략
- 행·재정적 지원기관 필요 - 행·재정적 지원 방안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 기존기관의 수집노하우와 정보공유 - 사전조사로 전략의 실패대응	기관의 수집경험 사전조사	수집능력 향상과 활용으로 국가 정체성 강화	결과
- 방법론 연구와 기록학적 접근 필요 - 전략 공감대 형성과 확대방안 마련	전략의 방법론 연구와 홍보		
- 수집능력 향상과 전략 성과 창출 - 기관 간 협력으로 새로운 경험창출	수집능력 향상으로 새로운 경험창출	수집능력 향상과 활용으로 국가 정체성 강화	결과
- 연구 활용과 서비스이용 증가 - 국가적인 정체성 강화	활용증가로 국가 정체성 강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수집과 이용확대 요인'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라는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질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부문에 따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포괄적 수집 필요'는 법적 이관으로 대통령기록물 포괄 불가능,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제한적인 수집방법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은 법적으로 단일하게 생산출처가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대통령기록물이 총체적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방법론 중에 가장 효율적인 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인거죠.” (참여자 B1)

다음 하위범주 '정보공유와 이용 서비스 확대 필요'는 기관 간 정보공유 활용, 시민참여와 이용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관기관의 경쟁이나 중복 없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수집 조정 및 공동 활용 측면과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점에서 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7)

둘째, 중심현상은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서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참여자가 겪은 경험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행위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중심현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으로 하였다. 중심현상은 질문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다기관 협력 수집의 성공적인 적용방안', '다기관 협력 수집방안 연구의 참여' 등 4개 부문 전체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도큐멘테이션 전략 인식'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인식형성, 방법론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큐멘테이션의 전략은 사실 이런 인식은 있어요, 기관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역사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라고 개념화가 안되어 있을 뿐이지 이를테면 한 주제를 선택해서 관련 자료를 모은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파악한다. 그리고 최근에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관련해서 주제별 수집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사업담당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아직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제별 및 사건별 접근방식이 필요해요.” (참여자 B2)

다음 하위범주 '대통령기록물 보안을 위한 수집전략'은 기존 수집기록물 연계방안, 소재정보를 파악하여 부족한 기록물 보안의 개념을 도출

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뉴스크립트 방법론을 통해서 국회의원 기록물을 수집하면 결국 대통령들이 예전에 의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죠. 현재 헌정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 중에서도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집 전략을 하지는 않지만 이미 수집되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기록물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찾아서 활용하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방안이겠죠.” (참여자 B1)

“공공기록물법이 생기기전에도 규정상 정부기록보존소에 있어야 할 기록물들이 안 온 거예요. 법이 없기도 했지만, 기록관리 문화,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 또는 여기에 제시된 기관을 다 포함하더라도 드러나 있는 기록물만 가지고는 재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초점은 사실 소재 정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참여자 B5)

셋째, 맥락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으로 전략을 다루고 조절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협력과 사회현상 가치평가의 관심증가’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라는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맥락적 조건은 질문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다기관 협력 수집의 성공적인 적용방안’ 등 2개 부문 인

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협력의 필요성 강화’는 기관 간 노하우 공유, 수집 대상 다양화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를 위해서는 유관기관들 간에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자 A1)

“다기관 협력 수집의 최대 장점은 단일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특이성 등이 있지만 그 기관에서만 하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측면에서 수집대상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넓히는데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자 B3)

다음 하위범주 ‘역사 및 사회적 가치평가의 관심증가’는 역사 및 사회적 가치와 맥락의 평가 연구, 사회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 증가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역사학이든지 다른 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평가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참여자 B3)

“대통령기록이라는 기록물 중에 대표적인 유형을 사회,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수집하고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기록수집이나 제반 기록 활동에 대한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외연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통령기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들을 환기하고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참여자 A2)

넷째, 중재적 조건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구조상의 조건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 성과 미흡’과 ‘국가차원의 수집정책 전략설계 미비’라는 범주가 ‘수집 전략 설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라는 전략을 방해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은 질문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다기관 협력 수집의 성공적인 적용방안’ 등 3개 부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4개 하위범주, 2개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 ‘도큐멘테이션 전략 성과 미흡’은 ‘기록화 대상과 범위의 설정 한계’와 ‘물량위주의 중복수집’인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기록화 대상과 범위의 설정 한계’는 소재정보 파악의 어려움, 수집대상과 범위 선정의 어려움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록화 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이나 사건에 기준을 삼는다고 치면 그 정책이나 사건을 반영한 기록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참여자 B5)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응용하여 연구한 사례들

을 살펴볼 때 범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요.”(참여자 A3)

다음 하위범주 ‘물량위주의 중복수집’은 초기 멸실로 수량 부족, 수집경쟁에 따른 중복수집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는 기록물의 물리적인 수량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초기 대통령의 기록물 같은 경우는 꼭 정치적인 지향을 떠나서 점점 더 멸실 위기가 커지고 있으니깐요.” (참여자 A2)

“현재 국내 각 기관에서 외국 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올 때 중복수집해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이나 동일하게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력과 자원을 낭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참여자 C2)

두 번째 범주는 ‘국가차원의 수집정책 전략설계 미비’는 ‘수집정책 모델 설계 미흡’과 ‘정치적인 이해관계 발생과 기관장의 낮은 관심’인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수집정책 모델 설계 미흡’은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적 및 재정적 비용과다, 기관 실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의 비일관성 유발, 구체적인 수집정책 프로세스 모델 부재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물리적인 기록물 수집에 많은 초점이 맞춰있었어요. 범위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이기

도 했고 지역적으로든 주제에 관한 거든 그래서 사실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도 많이 필요한 거고요.” (참여자 B1)

“처음 수집 단계부터 특히 중요한 주제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취해서 수집단계부터 확보를 해야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수집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그때 가서 정리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일관된 프로세스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워야 한다고 봐요.” (참여자 B2)

다음 하위범주 ‘정치적인 이해관계 발생과 기관장의 낮은 관심’은 민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발생, 의사결정권자인 기관장의 낮은 관심과 이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여전히 진행 중인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문제가 있죠.” (참여자 A2)

“기관의 의사결정을 최종으로 내리는 기관장의 판단과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타기관의 기관장까지도 함께 이해시킬 수 있는 경험이 만들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의 관심도 및 이해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는 것이 필요해요.” (참여자 B3)

다섯째, 전략은 특별한 상황에서 현상을 다루어서 실행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

여 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다듬어 간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 수집’이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는 전략은 ‘수집 전략 설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라는 범주로 나타났다. 전략은 질문지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다기관 협력 수집의 성공적인 적용방안’, ‘다기관 협력 수집방안 연구의 참여’ 등 3개 부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8개 하위범주,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범주 ‘수집전략 설계’는 ‘수집정책과 기관미션 및 비전 수립’과 ‘공동참여로 중복수집 방지’,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인 세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수집정책과 기관미션 및 비전 수립’은 수집정책 성문화 필요성, 기관의 미션과 비전 설계로 마인드 형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집을 하려면 수집정책이 필요하죠. 방향성과 미션과 그거에 대한 수집전략이 있어야지 당연히 수집이 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어떤 기관이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공공기관에서 이걸 하려면 정책이 있어야하고, 이 정책은 법규적인 틀로 정형화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구요. 성문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집정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참여자 B1)

다음 하위범주 ‘공동참여로 중복수집 방지’는 공동참여와 협력 중요, 무분별한 중복수집 방지

리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간의 필요성을 공유한다거나 정치적으로도 크게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는 수집대상이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협력을 위한 라인업이 꾸러질 거예요.” (참여자 A2)

다음 하위범주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은 기록화 대상 및 범위분석, 우선순위 결정, 기록화 대상 수집방법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주를 결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행위를 기준으로 하려고 해요, 직접적인 행위기준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하는 작업이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갖거나 어떤 면담을 갖거나 그런 부분하고 외국과의 주요한 정책들과 외교안보 정책들을 사전에 연도별로 시기별로 안배를 하고 그 행위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고난 다음에 수집범위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참여자 C2)

“기록화 우선순위는 제 생각에는 실무적으로 주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뭘 소장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 분석해봐야죠.” (참여자 C1)

“우선순위 기준은 대통령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7)

“수집물은 1차로 문서를 수집했고, 구술 작업을

과제로 했어요, 대상에 대한 평가들이 나와 있는 저서나 사료들 수집, 언론기사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사진이나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문서 수집할 때 기본적으로 수집이 되어 있어요.” (참여자 A1)

두 번째 범주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는 ‘전략 운영주체 선정과 조직구성’, ‘지문조직의 운영’,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기관의 수집경험 사전조사’, ‘전략의 방법론 연구와 홍보’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중에서 ‘전략 운영주체 선정과 조직구성’은 대통령기록관 적합 및 이외 기관(안), 조직구성역할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이 되는 것이 맞고요, 법적으로도 있지만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간기록이라든지 기층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총체적으로 해주는 역할은 기록화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참여자 B1)

“예전에는 당연히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이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동등한 관계라면 그 주제와 선정 범위에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운영기관이 되어야겠죠. 재정력, 추진능력, 섭외능력,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잘 분석해서 협의에 들어

가는 거겠죠.” (참여자 C1)

“각자 참여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양에 비해서는 분업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분업이 필요하되 합의체적인 운영이 사업을 성공하는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B3)

다음 하위범주 ‘자문조직의 운영’은 자문조직의 장점과 단점, 자문조직 선정 기준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문위원회를 할 때 항상 2번을 해요, 학계 전문가들 모셔서 한번하고 각 기관의 담당자들하고 자문위원회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하고 학계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각 기관의 정보도 얻을 필요가 있죠.” (참여자 B5)

“자문조직은 실용적이어야 해서 굳이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콤팩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문이란 틀은 별도로 일하는 기관이나 참여하는 기관에서 소화하면 되겠죠.” (참여자 A2)

다음 하위범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은 행·재정적 지원기관 필요, 행·재정적 지원 방안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가기록에서 최고 심의위원회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하는 정책결정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미션이 필요

할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그런 것에 집중이 되어야겠죠.” (참여자 B1)

“이것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기관이 다기관 협력 수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프로젝트는 그냥 민간이하고 국가가 보조금처럼 돈만 주는 건지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C1)

다음 하위범주 ‘기관의 수집경험 사전조사’는 기존기관의 수집노하우와 정보공유, 사전조사로 전략의 실패대응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했을 때 보면 그 기관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또는 인적사원의 특성 이런 것을 반영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려면 지역의 기관의 소장되어 있는 자료나 특성을 상당부분 파악을 한 그런 상태에서 현지 전문가가 파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C2)

“사전조사를 해서 다른 사례들에 대해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타산지석 삼을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참여자 B1)

다음 하위범주 ‘전략의 방법론 연구와 홍보’

는 방법론 연구와 기록학적 접근 필요, 전략 공감대 형성과 확대방안 마련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기록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기록학은 연구 성과를 가장 단기간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학문이거든요. 학계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생산해 내고, 현장의 실무진과 공유를 통해 실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참여자 A3)

“우리사회에 기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환기할 만한 아이템들을 다뤄서 그런 것들을 소셜펀딩으로 참여해서 모금을 받고, 제반기관들이 참여해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된다면 많은 사례가 있지 않더라도 해마다 기록인대회하는 것보다 더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이득을 주는가. 어떤 단위의 사업이든지 저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A2)

여섯째, 결과는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혹은 어떤 현상을 관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취해진 전략의 결과 혹은 성과를 의미한다 (Strauss & Corbin 1998). 즉 결과는 전략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 ‘수집 전략 설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관리강화’ 전략을 사용하여 형성된 결과는 ‘수집능력 향상과 활용을 통한 국가 정체성 강화’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과는 질문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인식과 필요성’,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다기관 협력

수집방안 연구의 참여’ 등 3개 부문 인터뷰 결과에 따라서 중복되는 속성을 묶어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개념을 묶어서 ‘수집능력 향상으로 새로운 경험창출’, ‘활용증가로 국가 정체성 강화’의 두 가지 하위범주를 통합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하위범주 ‘수집능력 향상으로 새로운 경험창출’은 수집능력 향상과 전략 성과 창출, 기관 간 협력으로 새로운 경험창출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전략이 된다면 각 파트에서 기록물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수집능력 향상된다고 봐요.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될 수 있고 경험 자체가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서 역량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담당자 자문도 받으면서 다른 담당자들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하니 당연히 수집능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B2)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가령 기념관에서 보존중이거나 리드, 케이스파일 등을 공유하고 협업해 나간다면 단순하게 중복 수집을 피하는 것 뿐 만아니라 새로운 수집처 및 방법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참여자 A3)

다음 하위범주 ‘활용증가로 국가 정체성 강화’는 연구 활용과 서비스이용 증가, 국가적인 정체성 강화라는 개념을 도출하여 통합하였다. 이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례는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각

조직이 분리되어 있어서 벽이 많은데 관련 기관들의 협업작업들을 통해서 공직사회 자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잘 취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활용도는 즉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욕구를 정부가 해소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연구의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연구능력, 역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정부조직이 그냥 정부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참여자 B2)

“일단은 어떤 중심이 되는 기관형 아카이브가 필요하다는 점이구요. 대통령기록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단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해요. 그것을 대통령기록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서차원에서 그런 협력과 공유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해질 일관성도 있고 일단 그런 것이 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B1)

4. 대통령기록물 수집 개선방안

4.1 수집 전략 설계

4.1.1 수집정책과 미션 및 비전 수립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하는 모델의 성문화와 정책이 필요하다. 영국의 The Record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전략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에 관한 정부 정책은 공적으로 투자된 아카이브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아카이브의 힘을 다루고 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의 의사결정과 무결성을 설명하는 증거적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 모두 수집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수집정책은 먼저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며 수집정책을 수립할 때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한 마인드가 조직 내에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유관기관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집 정책문을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이 선정되면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반영한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성문화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1.2 중복수집 방지를 위한 협력

국내 대통령관련 유관기관은 대통령과 관련된 해외 소재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한 수집경쟁으로 중복수집이 이루어졌다. 심층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중앙행정기관 참여자 모두 중복수집의 문제점에 대하여 응답하였다. 이러한 중복수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관 간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략의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은 중복수집으로 기록물을 쌓아놓기만 하여 대통령기록물이 활용과 이용이 되지 않는 문제점과 예산의 낭

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협력은 비체계적이고 비일관적인 일반 회의체 협력과 달리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선정하여 진행되며 이 그룹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참고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3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

대통령기록물 수집전략 설계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기록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예비 사전검토의 목적은 그룹이 초기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설계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큐멘테이션 대상의 영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대상을 선정할 때 주제를 정하는 것은 현장 내에서 전문가가 구조를 설립하고 경계를 개선할 때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심층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참여자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과 어려운 부분으로 기록화 대상 선정을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수행하는 국정운영의 통치행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통령별 기록화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정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생산기관 기능을 조사하여 재조직을 한 후, 부족한 기록물을

파악하고 기록화 대상을 선정하여 소재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기록화 대상 선정할 때 주관적인 점과 중복가능성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곽건홍(2010)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중요 기록이 대부분 관리소홀과 무관심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점을 언급하면서 잔존기록을 재조직하는 것은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볼 기회를 제공하고 현대사 연구에서 사료 이용을 다양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먼저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전의 역대 대통령 문서현황을 살펴보면 역대 대통령 특정 생산 기관의 기록물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 윤보선대통령 문서편』을 살펴보면 이승만대통령 관련 문서현황은 <표 11>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특정 생산기관 문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승만대통령 재임 시기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활동을 예를 들어 기록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 대통령시기의 연표를 조사하였다. 둘째, 연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활동 및 사건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사사오입 개헌, 뉴델리 밀회사건,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일제상품 몰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다. 여기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활동을 선정하였다.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정부기관을 살펴보았다.

주요 정부기관은 국가기록원 생산기관 변천 연혁 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도출하였는데 ‘한

〈표 11〉 이승만 대통령 문서현황

대통령	생산기관	내 용	건 수
이승만 (1948.7.20~1960.4.26)	대통령비서실	의명지시, 연설문	675
	국무총리비서실	국정일반	31
	총무처	인사, 서훈	680
	법제처	법률, 대통령령	2,116
	외무부	조약	8
	재무부	재무	42
	법무부	법무	9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5
	문교부	문화공보	6
전매청	전매	2	
총 계	3,574건		

〈표 12〉 외무부 직제

기 관		주요 업무	
외무부	총무과	- 기밀사항, 인사, 예산, 결산, 회계, 소속관서의 회계검사, 관유재산, 물품, 외교관양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 부내 타과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의전과	- 신임장, 해임장, 위임장, 외국의 외교관과 영사관, 외국인의 대통령알현, 외국인등록, 외국인에 대한 영예수여에 관한 사항 - 외국훈장, 기장에 관한 사항	
	문서과	- 관인관수, 문서, 법령례규 통계, 전신부호, 번역에 관한 사항 - 여권에 관한 사항	
	정무국	제1과	- 중요 대외정책의 입안과 종합조정, 국제정치회의,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비준, 편찬과 보존, 국제법, 국제관습, 섭외법률사항, 국제행정에 관한 사항 -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과	- 외교사무에 관한 사항 - 재외국민에 관한 사항
	통상국	정책과	- 국제경제, 금융, 교통사정의 조사연구,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 국제경제 회의 및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역과	- 해외시장, 상품, 관료, 금융, 무역, 교통에 관한 대외교섭 및 업자의 지도에 관한 사항
	정보국	보도과	- 부발표와 통신기관과의 연락대의 선전, 정보수집, 국제정치사정 및 외교, 사실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국내 타과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문화과	- 국제문화에 관한 사항 - 관광에 관한 사항

미상호방위조약' 생산기관은 외무부 정무국이
며 하위기관인 제1과에서 조약비준 업무를 담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무부의 기능은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1950년 4월 1일 시행된 외무
부 직제를 살펴보았으며 〈표 12〉와 같다.

직제를 바탕으로 〈표 13〉과 같이 기능을 재
조정을 하여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 기록물
과 연계하였다. 여기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관
련 기록물'과 관련한 기록건은 한미상호방위조
약비준서 교환의 건만 있었다.

〈표 13〉 기능 재조정과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연계

기능레벨			기록건	
외무	의전 관리	외국관계자 의전	외국인의 대통령알현	
		외교사무관리	여권, 외국인등록, 재외국민처리	
	행정 관리	인사관리	외교관 양성, 직원후생	
		법령관리	법령 예규 통계관리	
			국제법률 관리	
		재무관리	소속관서의 회계검사, 관유재산, 물품관리	
		문서관리	관인관수, 전신부호, 번역	
	상훈관리	외국 훈장관리		
	대외 정책	대외정책수립	대외정책의 입안과 종합조정	
			국제정치회의의 정책	
			조약 및 국제협정의 체결과 비준	한미상호방위조약비준서 교환의 건
		대외경제정책 수립	국제경제 정책 수립	
	교역 관리			
	국제 문화	국제문화관리	국제문화와 관광정책 수립	
연구관리		국제정치 조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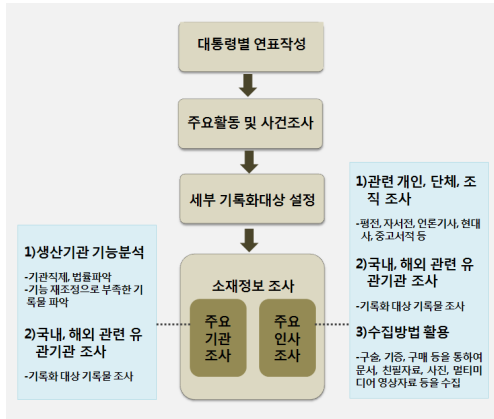
‘한미상호방위조약 관련 기록물’의 기록물이 1건만 남아있어서 이와 관련한 기록물의 소재 정보가 있는 외교사료관과 이승만 연구원을 살펴보고왔다. 먼저 외교사료관 ‘제1차 외교문서 공개목록(1948년~1959년)’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1951년 미국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각서교환, 한국·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기록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승만 연구원은 목록문서 중에서 1948년 이후 공문서의 외무문서 48번 한미상호방위조약비준서(1954.1.29.)의 소장자료를 확인하였다.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관련 인사를 살펴보고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6월 미국 대통령특사 로버트 슌이 내한하여 외교적 절충이 시작되었고, 8월에 딜레스 국무장관은 한국에 파견되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조약안을 제시하였으며 1953년 10월 1일에 딜레스 국무장관과 변영태 외무부장관

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서명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관련된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는 이승만 연구원 목록문서 중 1948년 이후 공문서의 외무문서 49번 Diplomatic Documents: 변영태 외 6인(1952-1953), 50번 Korean Delegation to the United Nations: Pyun Yong Tae(1954.10-1954.11)의 소장자료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유관 기관과 해외 유관기관의 소장목록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역대 대통령 재임 시기의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안)’을 제안하면 〈그림 4〉와 같다. 다만 재임 시기 이전과 이후와 관련된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는 생산기관 기능분석부분을 제외하여 수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수립(안)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첫 단계인

‘도큐멘테이션 대상 정의 및 사전분석’이다.



〈그림 4〉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 수립(안)

4.2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홍보

4.2.1 전략 운영주체 선정과 조직구성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 선정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는 지방 기관과 수집기관, 문화 및 스포츠 분야부터 중앙정부에 걸쳐 선출되어 The Record를 조직했고 프로젝트 주제별로 추가 기관을 연계했다. 또한 The Record는 그룹별 의무사항을 부여했는데 예들 들어 중앙기관 그룹은 범위, 처리 및 이관에 관하여 주요 결정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심층인터뷰를 살펴보면 참여자 대부분은 전략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대통령기록관은

통합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이 집합적으로 있어 활용과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업무와 직제가 반영되었고 재정력 및 추진력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략과 관련한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록화 대상 주제와 선정범위를 정할 경우 이를 잘 아는 기관이 운영주체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학술연구는 기념사업회가 주체가 되고 수집정책과 대통령기록물의 전반적인 관리는 대통령기록관이 주체인 즉 사안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른 참여자는 전체 대통령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하므로 대통령기록관이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책임 시기 대통령기록물만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전 생애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민간 유관기관들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운영주체는 법적 및 현실적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책임 시기 이전이나 이후의 기록물 수집을 확보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련 민간 유관기관들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4.2.2 자문조직의 운영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세스 모델을 살펴보면 이 전략을 설계한 후 도큐멘테이션 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나누어 전략을 실행한다. 그리고 두 가지 접근방식에서 조정자를 통하여 작업한다. 또한 이 전략은 도큐멘테이션 그룹을 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타 그룹인 기록관리자, 아카이

브 담당자 그리고 이용자 그룹, 자금지원기관, 정부직원, 전문가 협회 등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두 그룹은 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작업한다. 국의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토탈아카이브에서는 종교기관 아키비스트, 기독교 관리위원회, 종교학자 등이 자문위원이 되었고 영국의 The Record에서는 아키비스트, 정책 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지역 사회 시민 등이 자문 역할을 맡았다.

이상의 자문위원에서 아키비스트는 이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했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대상과 관련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략에 관한 주제가 선택되면 활동을 확인하고 프로젝트를 안내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문단의 그룹을 선별해야 한다. 이러한 자문위원회 및 운영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발, 감독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살펴보면 참여자 대부분은 자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문조직의 인적 구성은 자문조직 역할과 전략모델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문조직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자문조직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평가, 조정역할과 객관성 확보, 비전문적인 실무자의 능력보완, 국가적 차원의 과제 선정 역할 등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자문 역할을 넘어서 결정권, 많은 참여로 더딘 의사결정, 특정대통령 지지에 따른 좌우 찬양과 비판, 자문조직 구성으로 조직의 비대화 등이다.

4.2.3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에서 영국 TNA의 The Record 목표를 살펴보면 영국 전역의 스포

츠 및 문화 이벤트의 효과적인 제공을 지원, 재무적 및 운영적 위험을 완화,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보장 등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TNA는 모든 그룹에게 사무국 기능을 주었고, The Record의 감독 및 운영을 지속하였으며, 정부 책임과 보증을 전달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살펴보면 참여자 모두는 국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러한 지원기관은 현실적으로 국가기록원 또는 대통령기록관이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참여자는 다기관 협력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짜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심사를 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는 행·재정적 지원기관이 다기관 협력수집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는지와 민간이 다기관 협력 수집을 운영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프로젝트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미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러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 대통령관련 유관기관의 기록물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고 감사와 조정을 하는 역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4 기관의 수집경험 사전조사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법론을 살펴보면 기록화 대상을 위한 사전분석인 예비단계는 기존의 지식과 평가 작업을 한 연구자의 관점을 깊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전검토의 목적은 수집하기 전에 시작하는데 전략을 설계

하고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략의 대상 영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략에서는 유관기관의 기존 수집경험을 사전에 조사하여 기록화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아카이브 협회는 다른 작업사이에서 기존 수집 정책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 전략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인터뷰를 살펴보면 참여자 모두 기관의 기존 수집경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수집의 노하우를 알 수 있으며 실패나 중복수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수집정책과 운영을 포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연구 및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기관의 효율적인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른 기관의 수집경험을 서로 협력하여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2.5 전략의 방법론 연구와 홍보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는 국가의 역사를 기록화하려는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개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결과이며 증거적, 정보적 및 문화적 이유로 다양한 역사적인 기록물 보존을 강조하는 아카이브 개념의 포괄적 정의에 따른다. 또한 이 개념은 캐나다 보존 역사 150년 이상에 걸쳐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The Record는 10년 이상을 계획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제 사례로서 발전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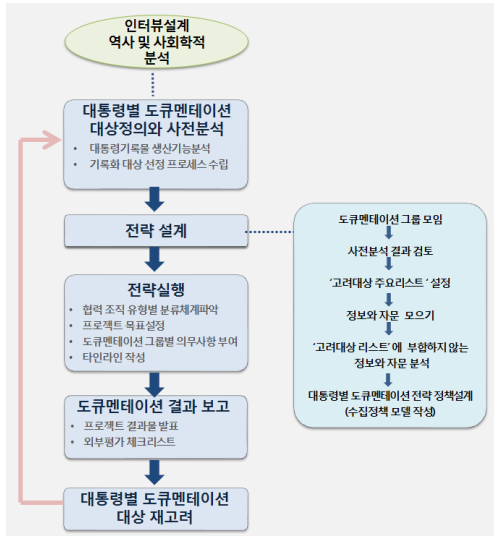
집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큐멘테이션 방법론을 설명하기 위해 빠르게 개발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문제, 아카이브 컬렉션의 장기 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에 관한 해결책으로 The Record에 착수하였고 2012년 문화 올림픽 유산을 위한 비전으로 'Setting the Pace'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박물관, 도서관 및 아카이브 컬렉션에서 사람들이 영감, 학습, 독창성을 경험하는 방법을 조사한 결과물인 프로젝트로서 그 중에서 하나가 The Record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반복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결과물을 공개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심층인터뷰를 살펴보면 참여자 대부분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인식에 관한 공감대가 전제되어야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관한 방법론 연구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련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경험은 중요한데 이것은 연구자가 도큐멘테이션 전략 방법론을 연구한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어 대중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공감대와 필요성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에 관하여 대중이나 민간 대통령관련 유관기관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감대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언론, 잡지, 강연을 통하여 지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연차회의,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어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는 디지털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컬렉션을 구성하고 출판물을 제작하는 것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이론적 방법론과 국외 성공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중

합하여 대통령기록물 수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별 도큐멘테이션 전략(안)을 도출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대통령별 도큐멘테이션 전략(안)

5. 결론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역대 대통령기록물은 현재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및 미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수행하는데 참고할 만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의 재임 및 재임 이전 이후시기 기록물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을 제안하고자 연구하였다. 먼저 국내 대통령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하였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이론적 방법론을 문헌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국외 수집사례인 캐나다, 영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하여 문헌연구를 하였다. 미국은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 역사, 수집기관, 대통령기록물 범주, 수집관리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수집방법 중 하나인 구술 프로젝트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살펴보았으며 대통령기록물 수집현황을 개인 소장자 기증을 통한 수집, 구술채록을 통한 수집, 해외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본 결과 국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이론적 방법론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포괄적인 수집과 이용확대 요인'으로, 중심현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한 대통령기록물 수집'으로 도출되었다. 맥락적 조건은 '협력과 사회현상 가치평가의 관심 증가'로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은 '도큐멘테이션 전략 성과 미흡'과 '국가차원의 수집정책 전략 설계 미비'로 도출되었다. 또한 전략은 '수집 전략 설계',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방법론 홍보'로 도출되었다. 결과는 '수집능력 향상과 활용으로 국가 정체성 강화'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물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 전략 설계'와 '도큐멘테이션 전략 운영과 홍보'로 구분하였으며 먼저 '수집 전략 설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반영한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성문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복수집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 간의 협력 장치 마련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록화 대상 선정 프로세스는 각 대통령 별 연표작성, 주요활동 및 사건조사, 세부 기록화대상 설정, 주요기관과 인사를 조사하여 소재 정보를 파악, 도큐멘테이션 전략 설계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운영과 홍보'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관련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운영주체는 법적 및 현실적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자문조직을 제안하였다. 셋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행정적인 미션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넷째, 기관의 기존 수집경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인식

에 관하여 공감대가 전제되어야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에 관한 방법론 연구의 공유가 필요한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이론적 개념과 사례를 조사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관리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전략을 설계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와 홍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적용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 수집에 있어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실제로 적용한 대통령별 기록물 수집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후속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0). 노동청 기록의 재조직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3, 141-178.
- 국가기록원 (2004).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이승만, 윤보선 대통령 문서편. 서울: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09). 2009년 국가기록백서. 서울: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0). 2010년 국가기록백서. 서울: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1). 2011년 국가기록백서. 서울: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2012). 2012년 국가기록백서. 서울: 국가기록원.
- 김익한, 권소현 (2010). 강릉단오제 기록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173-214.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기록학연구, 36, 233-269.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37-80.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홍원기 (2004). 대통령 기록물의 수집·이관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Cook, T. (1992).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181-191.
- Ericson, T. L. (1997). To Approximate June Pasture: The Documentation Strategy in the Real World. *Archival Issues*, 5-20.
- Geselbracht, R. (1983). The Four Eras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apers. *Prologue*, 15(1), 37-42.
- Greenwell, R. (1997). The oral history collections of the presidential librarie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4(2), 596-603.
- Hackman, L. J. & Warnow-Blewett, J.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50(1), 12-47.
- Malkmus, D. J.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The American Archivist*, 71(2), 384-409.
- Menne-Haritz, A. (2009).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American Archivist*, 57(3), 528-542.
- Millar, L. (1996). Discharging our debt: the evolution of the total archives concept in English Canada. *Archivaria*, 1(46), 103-146.
- Phillips, F. (1995). Congressional paper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merican Archivist*, 58(3), 258-269.
- Riley, R. L. (2007). Presidential oral history: The Clinton presidential history project. *The Oral History Review*, 34(2), 81-106.
- Samuels, H. W. (1986).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2), 109-124.
- Strauss, A. & Corbin, J. (2001).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전 발행년 1998).
- Thompson, T. (1990). Ecumenical Records and Documentation Strategy: Applying Total Archives. *Archivaria*, 30, 104-109.
- Warnow-Blewett, J., Genuth, J., & Weart, S. R. (2001). AIP Study of Multi-Institutional Collaborations: Final Report.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1-267. Retrieved from <http://www.aip.org/history/pubs/collabs/mainreport.pdf>
- Williams, C. (2012). On the record: Towards a documentation strateg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3(1), 23-40.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09호)
- 「대통령관련 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대통령기록관 훈령 제11호)
- 「대통령기록관 구술기록 수집·관리 지침」 (대통령기록관 예규 제10호)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 연혁 관리정보 검색, 검색일자: 2014. 11. 27.

<http://theme.archives.go.kr/next/organ/mainView.do>

이승만 연구원 문서목록 검색, 검색일자: 2014. 11. 27.

http://syngmanrhee.yonsei.ac.kr/index.php?mid=researcher_pds_menu_1

외교 사료관 연도별 공개목록 검색, 검색일자: 2014. 11. 27.

<http://diplomaticarchives.mofa.go.kr/index.do>

Miller Center. Retrieved August 2, 2014, from <http://www.millercenter.org/>

NARA. Retrieved May 26, 2014, from <http://www.archives.gov/>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Hong, W. K. (2004). A study on the collecting and transferring of presidential recor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Seoul Korea.

Kim, I. H. & Kwon, S. H. (2010). A Study on the Documentation Method of Gangneung Danoj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4, 173-214.

Kwak, K. H. (2010).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Labor's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Nati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3, 141-178.

Lee, S. E. (2005). Analysing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Decision: Theoretic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2, 37-80.

Seol, M. W. & Kim, J. H. (2013). Implementing Sp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for Donghae-Nambu Railway Area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233-269.

